

HOISIOH

전
편
출
간
어
문
학
이
수
문
학
과
대
체

2023 학년도 수능 대비

홀수 국어

기 / 출 / 분 / 석 / 서

공통

문학

▶ 문제

HOLSOO

홀수 국어 기출 분석서 **문학**

1판 1쇄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인 이신열

발행처 주식회사 도서출판 홀수

출판사 신고번호 제374-2014-0100051호

ISBN 979-11-89939-66-3

홈페이지 www.holsoo.com

- 이 책의 저작권은 주식회사 도서출판 홀수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 복제할 수 없습니다.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처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교재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help@holsoo.com)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수를 만든 사람들

출판기획 윤지숙 장혜진 이수현 김주현 박효비 정경아 서미리

디자인 유초아 이재욱

목 차

INTRO		수능 문학을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수능	이육사, 「초가」 / 김관식, 「거산호 2」 / 이육, 「담초」	P.014	P.006
2022학년도	수능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P.018	P.013
2022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박태보전」	P.020	P.018
2022학년도	수능	정훈, 「탄궁가」 / 위백규, 「농가」	P.022	P.023

PART 1		현대시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9월 모평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P.026	P.030
2022학년도	6월 모평	김기림, 「연륜」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P.028	P.034
2022학년도	예시문항	백석, 「수라」 / 김선우, 「신의 방」	P.030	P.038
2021학년도	수능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2 - 그 언덕」	P.032	P.042
2021학년도	9월 모평	김수영, 「사령」 / 김혜순, 「한강물 알고, 눈이 내린 날」	P.034	P.045
2021학년도	6월 모평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P.036	P.049
2020학년도	수능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P.038	P.053
2020학년도	9월 모평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P.040	P.056
2020학년도	6월 모평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P.042	P.059
2019학년도	수능	유치환, 「출생기」 /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P.044	P.062
2018학년도	9월 모평	김현승, 「플라타너스」 / 정지용, 「달」	P.046	P.065

PART 2		고전시가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9월 모평	허난설헌, 「규원가」 /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P.050	P.070
2021학년도	6월 모평	정철, 「관동별곡」	P.052	P.074
2020학년도	9월 모평	정극인, 「상춘곡」 / 이이, 「고산구곡가」	P.054	P.078
2019학년도	수능	김인겸, 「일동장유가」	P.056	P.084
2019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조위, 「만분가」	P.058	P.088

PART 3-1		현대소설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6월 모평	홍성원, 「무사와 약사」	P.062	P.094
2022학년도	예시문항	이광수, 「무정」	P.064	P.098
2021학년도	수능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P.066	P.102
2021학년도	9월 모평	이기영, 「고향」	P.068	P.106
2021학년도	6월 모평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P.070	P.111
2020학년도	수능	김소진, 「자전거 도둑」	P.072	P.115
2020학년도	9월 모평	이청준, 「자서전을 쓰십시오」	P.074	P.119
2020학년도	6월 모평	박경리, 「토지」	P.076	P.123
2019학년도	9월 모평	최명익, 「비 오는 길」	P.078	P.127
2019학년도	6월 모평	양귀자, 「한계령」	P.080	P.131
2018학년도	수능	이문구, 「관촌수필」	P.082	P.135
2018학년도	9월 모평	임철우, 「눈이 오면」	P.084	P.139
2018학년도	6월 모평	이호철, 「큰 산」	P.086	P.144

PART 3-2 극

			문제 책	해설 책
2019학년도	9월 모평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P.088	P.148
2018학년도	9월 모평	차범석, 「불모지」	P.090	P.152

PART 4 고전산문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배비장전」	P.094	P.160
2022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P.096	P.164
2022학년도	예시문항	작자 미상, 「박씨전」 / 작자 미상, 「조보」	P.098	P.169
2021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최고운전」	P.102	P.175
2021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심청전」	P.104	P.180
2020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P.106	P.184
2020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장끼전」	P.108	P.189
2020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조웅전」	P.110	P.193
2019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임장군전」	P.114	P.198
2019학년도	9월 모평	「홍길동전」	P.116	P.202
2019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옹고집전」	P.118	P.206
2018학년도	수능	김만중, 「사씨남정기」	P.120	P.211
2018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적성의전」	P.122	P.216

PART 5-1 갈래 복합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9월 모평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P.126	P.222
2022학년도	6월 모평	김시습, 「유객」 / 김광욱, 「율리유곡」 / 김용준, 「조어삼매」	P.130	P.228
2021학년도	수능	정철, 「사미인곡」 / 신희, 「창 밖기 워석버석~」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P.134	P.234
2021학년도	6월 모평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최동훈, 「전우치」	P.138	P.240
2020학년도	수능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 권근, 「어촌기」	P.142	P.247
2020학년도	6월 모평	안서우, 「유원십이곡」 / 성현, 「조용」	P.146	P.253
2019학년도	수능	박태원, 「천변풍경」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밭단」	P.150	P.259
2019학년도	6월 모평	박봉우, 「휴전선」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김기림, 「주을온천행」	P.154	P.266
2018학년도	수능	이정환, 「비가」 / 이병기, 「풍란」	P.158	P.272
2018학년도	9월 모평	작자 미상, 「춘향전」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P.162	P.277
2018학년도	6월 모평	주세붕, 「오류가」 / 이곡, 「차마설」	P.166	P.283

PART 5-2 영역 융합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예시문항	'개'를 소재로 한 시조들	P.168	P.287
2021학년도	9월 모평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흥」 / 이덕무, 「우언」	P.170	P.291
2019학년도	9월 모평	권호문, 「한거십팔곡」 / 박재삼, 「추억에서」 / 시의 리듬	P.172	P.297
2018학년도	수능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김광규, 「묘비명」 / 시에 반영된 현실과 시 자체	P.174	P.302
2018학년도	6월 모평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 조지훈, 「고풍 의상」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P.176	P.306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새로운 수능 국어는 202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국어는 공통과목(문학 + 독서)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or 언어와 매체) 구조가 도입됩니다.

2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3

총 45문항 중, 공통과목은 34문항(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이며, 선택과목은 11문항입니다.

개정 수능 국어	공통과목 (문학 + 독서)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or 언어와 매체)	총합
문항 수	34문항 (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	11문항	45문항
배점	76점	24점	100점
시험 시간	80분		

수능 국어가 새롭게 바뀌었으니, 이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무용지물일까요?

아닙니다! 수능 시험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수능 국어 시험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형식과 내용에 익숙해지되,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시험의 성격은 기출 분석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출 분석을 통해

- 1 수능 국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평가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들의 의미를 알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4 정답을 선택할 때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 5 문제를 틀리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능 국어 기출 공부 가능하도록!
1, 2, 3회독 ... 기출 분석의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에서
 홀수 기출 분석 노트 PDF를
 내려받아 활용해 보세요.

홀수 기출 분석 노트

- ✓ **문제의 답과 근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기출 분석 노트!**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면 수능 국어 기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홀수 기출 분석 노트만 따라 하면, 제대로 된 기출 분석 가능!**
 기출 분석의 중요성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STEP별로 나누어 분석 단계를 안내합니다.
 이대로 따라 한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출 문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풀이를 통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홀로 공부하는, 제대로 된 기출 분석법

시간 제한 풀기

1 STEP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가 선택한 답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문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
1	① ② ③ ④ ⑤	✓	
2	① ② ③ ④ ⑤		✗

홀수 기출 분석집 문제 책에 표시되어 있는 권장 목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푼다. 찍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내에 풀고, 확신 없이 푼 문제와 시간 제한을 넘긴 문제는 따로 표시해 둔다. 아직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풀기

2 STEP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1	✓	(가)에서 18세기 중국(청)에 대한 부학파 학자 반제가와 이덕무 여겼다는 점과 이것에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이 나타남.

같은 세트의 문제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분석해 봅니다. 지문을 분석하고 모든 선지의 근거를 적습니다. 이때 에도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3 STEP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정답 확인

문제	정답	STEP 1		S
		내가 선택한 답	정답 여부	
1	①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2	④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채점을 하고 STEP1과 STEP2의 정답 여부에 따라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출 분석의 반복

4 STEP

***N회독**

N회독을 할 때는 3 STEP 훈련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나 학습 상황에 따라 훈련 단계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회독 횟수	분석 내용
1~2회독(1학기)	① 지문의 핵심 요소 및 구조 완벽하게 분석 ② 모든 선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 ③ STEP 1~STEP 3의 과정 빠짐없이 시행
3회독 이상(2학기)	① 지문은 흐름 중심으로 분석 ② 선지는 정답 중심으로 근거 확인 ③ STEP 2~STEP 3 중심으로 시행

STEP1~STEP3의 과정을 밟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나 학습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구성과 특징

첫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으로 분권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5개년 평가원 기출 전 지문, 전 문항을 수록하여 지문 접근법과 문제 풀이법을 안내합니다.

셋째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 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14] 작자 미상, '백태보전'

실존 인물을 다룬 고전소설 '백태보전'이 단독 지문으로 출제되었어. 고전소설은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각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인물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고전소설의 인물 관계는 지문의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지문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주변 인물들에 대해 묻기도 하므로 꼼꼼하게 파악해야 해. 그리고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바뀌면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 장면을 끊어 읽는 것도 중요하지.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이때 태보 권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원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알.</p> <p>"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양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p> <p>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음원 권원(權元)이 모두 이로되.</p> <p>"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백중환 충을 풀랐으니 무순 낮이 있으리요.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p>	<p>[중략 부분의 줄거리] 백태보의 장례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백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p> <p>한원이 물어 알.</p> <p>"내 무죄하여 땅방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공진을 다 버리고 진고 충신을 따라 황상으로 구경 가나니. 습대니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small>어명을 순화하여 부인이 답하여 지내기를 바라는 태보</small></p> <p>하되, 부인이 대경 알.</p> <p>"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 한림은 그대지 독하시오. 저는 좌장으로 가신다!"</p>
--	---

▶ 친절하고 자세한 지문 분석

출수 해설은 문제의 지문을 해설에도 실어 정답과 오답 선지에 대한 근거 확인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갈래별로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요소를 시각화하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글을 읽는 사과의 흐름을 한눈에

지문에 평론이 있는 경우 출수 선생님의 독해법과 논리적 사과의 흐름을 그대로 담아 평론 지문을 분석하여 문제를 풀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기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던 작물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장차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개'를 소재로 하면서 다양하게 변모된 여러 시조 작품들이 제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기'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기'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온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행재와 그 후손들이 일본 자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적어 있다. (가)는 11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의 구성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가)
개야 쓰치 말라 밤 사름 다 도둑가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나)를 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래전부터 전승되던 (나)가 일본으로 도공들이 옮겨간 특수한 상황에서 (가)로 변모한 가 (나)는 화자를 역설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낱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란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품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실시조로 다시 정착되었다. 사실시조(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름 달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나)처럼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이 전승되며 당시의 양자적(다)로 변모한 가.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꺾칼이 알아우랴
미운 임 오면은 꼬리를 췌해 치며 치뵈라 내리뵈라 반져서 내
달고 고운 임 오면은 뒷발을 벵중벼루 무르다 나르라 강장 췌어서

유형 분석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재에 대해 묻어줘.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그 소재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야 하지. 뒷글에서는 우선순위를 케이스)과 '무언'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케이스)과 ㉡(우선 이상의 것)의 기능에 대해 물어보았어.

9.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풀이

ⓐ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재의 의도를 알아챘다.

김달재가 엄격권에 '뿔주머니'에 꿰 찬 우선 케이스를 내보였음에도 '뿔'에 비유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가뭇뻘 생성조차 하지 않는다. 즉 사복 차림의 청년은 ㉠(케이스)을 ㉡(우선 이상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김달재의 의도를 알아챈 것이 아니라, 김달재가 내미는 ㉢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다.

ⓑ 오답풀이

유형 분석

(보)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이 경우 지문, (보), 신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이때 한 번에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따지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지문 내용을 근거로 신지의 내용 일치·불일치를 따져 보고, 그 다음에 (보) 내용을 고려해 봐.

10. (보)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소시인은 자신의 기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인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인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보기 분석

▶ 전문항, 전 선지 꼼꼼하게 해설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모두의 질문

• 8-2번

- Q:** 김달채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우산을 보여주며 얻어낸 두 번째 결론에서 그들이 '피죄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군다고 했으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나요?
- A:** 뒷글에서 김달채 씨는 무전기처럼 생긴 우산(우산 케이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세 가지 결론을 얻어냈다. 그 결론은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실제 무전기와 김달채 씨의 우산(우산 케이스)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모두의 질문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Q&A 게시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애매한 내용이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틀잡기

- ① **자부심:**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 ② **풍자:**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그 병폐를 깨닫도록 하는 것.
- ③ **위세:** 사람을 두렵게 하여 복종하게 하는 힘.
- ④ **내력:**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특성.
- ⑤ **선망:** 부러워하여 바랄.



기틀잡기

문학 개념어 및 간략한 문제 접근법을 담아 수능 국어의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게 했으며, 이것만은 챙기자에는 해당 지문에서 꼭 챙겨가야 할 어휘를 풀이하여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기 분석

(가) 「증가」	(나) 「노래와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와 연결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냄 •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증가의 이야기를 현재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함 • 감정의 과잉을 유발하는 노래의 한계는 이야기로



보기 분석

〈보기〉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문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적 문제

• 3-5번

학생들이 정답 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는 5번이다. 〈보기〉의 설명을 작품과 연결지어 (가)의 '육지', (나)의 '버스'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에는 각각 자신의 '축적된 인생 경험'과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느끼는 화자가 등장하며,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가 사상 전개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적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합니다. 정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매력적 오답'을 집중적으로 살펴봄, 수험생이 흔히 갖기 쉬운 사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주 완성 학습 PLAN

✓ 체크하세요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1 주 차	Day 01	P.014	이육사, 「초가」 / 김관식, 「거산호 2」 / 이육, 「담초」	25:00			
		P.018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P.020	작자 미상, 「박태보전」				
		P.022	정훈, 「탄궁가」 / 위백규, 「농가」				
Day 02	P.026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5:30				
		김기림, 「연륜」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4:30				
Day 03	P.030	백석, 「수라」 / 김선우, 「신의 방」	5:30				
Day 04	P.032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2 - 그 언덕」	4:30				
		김수영, 「사랑」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4:30				
Day 05	P.036	조지훈, 「산상의 노래」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4:30				
		윤동주, 「바람이 불어」 / 김기택, 「새」	4:30				
Day 06	P.040	김영랑, 「청명」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4:30				
		김광균, 「추일서정」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4:00				
Day 07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2 주 차	Day 08	P.044	유치환, 「출생기」 /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4:30			
		P.046	김현승, 「플라타너스」 / 정지용, 「달」	4:30			
Day 09	P.050	허난설헌, 「규원가」 /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5:30				
		정철, 「관동별곡」	5:30				
Day 10	P.054	정국인, 「상춘곡」 / 이이, 「고산구곡가」	7:30				
Day 11	P.056	김인겸, 「일동장유가」	5:30				
		작자 미상, 「서경별곡」 / 조위, 「만분가」	5:30				
Day 12	P.062	홍성원, 「무사와 약사」	6:00				
		이광수, 「무정」	6:00				
Day 13	P.066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6:00				
		이기영, 「고향」	6:00				
Day 14		복습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3 주 차	Day 15	P.070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6:00			
		P.072	김소진, 「자전거 도둑」	5:30			
Day 16	P.074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6:00				
		박경리, 「토지」	5:30				
Day 17	P.078	최명익, 「비 오는 길」	6:00				
		양귀자, 「한계령」	5:30				
Day 18	P.082	이문구, 「관촌수필」	5:30				
		임철우, 「눈이 오면」	5:30				
Day 19	P.086	이호철, 「큰 산」	5:30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6:00				
		P.090	차범석, 「불모지」	6:30			
Day 20	P.094	작자 미상, 「배비장전」	6:00				
		P.096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6:00			
Day 21		복습					

4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22	P.098	작자 미상, 「박씨전」 / 작자 미상, 「조보」	7:00			
Day 23	P.102	작자 미상, 「최고운전」	5:30			
	P.104	작자 미상, 「심청전」	5:30			
Day 24	P.106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6:00			
	P.108	작자 미상, 「장끼전」	5:30			
Day 25	P.110	작자 미상, 「조웅전」	6:30			
	P.114	작자 미상, 「임장군전」	5:30			
Day 26	P.116	「홍길동전」	5:30			
	P.118	작자 미상, 「옹고집전」	6:00			
Day 27	P.120	김만중, 「사씨남정기」	6:00			
	P.122	작자 미상, 「적성의전」	6:30			
Day 28		복습				

5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29	P.126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7:30			
Day 30	P.130	김시습, 「유객」 / 김광욱, 「율리유곡」 / 김용준, 「조어삼매」	7:30			
Day 31	P.134	정철, 「사미인곡」 / 신희, 「창 밖기 워석버석~」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7:30			
Day 32	P.138	작자 미상, 「전우치전」 / 최동훈, 「전우치」	7:30			
Day 33	P.142	신계영, 「월선한심육경가」 / 권근, 「어촌기」	7:30			
Day 34	P.146	안서우, 「유원십이곡」 / 성현, 「조용」	7:30			
Day 35		복습				

6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36	P.150	박태원, 「천변풍경」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8:30			
Day 37	P.154	박봉우, 「휴전선」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김기림, 「주울온천행」	8:00			
Day 38	P.158	이정환, 「비가」 / 이병기, 「풍란」	7:30			
	P.162	작자 미상, 「춘향전」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7:30			
Day 39	P.166	주세붕, 「오류가」 / 이곡, 「차마설」	6:00			
	P.168	‘개’를 소재로 한 시조들	7:00			
Day 40	P.170	문학적 의미 생성의 세 가지 양상 / 윤선도, 「만홍」 / 이덕무, 「우연」	7:30			
	P.172	권호문, 「한거십팔곡」 / 박재삼, 「추억에서」 / 시의 리듬	7:30			
Day 41	P.174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김광규, 「묘비명」 / 시에 반영된 현실과 시 자체	5:00			
	P.176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 조지훈, 「고풍 의상」 /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6:00			
Day 42		복습				

🔊 1회독 6주 완성 프로그램 - 2, 3회독을 할 때에는 Day2~3일 분량을 묶어 하루치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INTRO



수능 문학을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2022학년도 수능 문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되고, '공통과목 + 선택과목'의 구조로 구성돼. 공통과목 중 하나인 '문학' 영역에서는 17문제가 출제되고, ① 문학 개념어에 관한 지식, ② 작품을 중심으로 한 이해와 감상의 적절성 판단, ③ <보기>로 제시된 다양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따라서 문학 개념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문으로 제시된 작품, <보기>의 내용, 선지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그럼 본격적인 기출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2022학년도 수능 문학 문제를 풀어보자!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ㄱ 구겨진 하늘은 목은 애기책을 편 듯
[A] ㄴ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ㄱ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B] ㄴ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슬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ㄱ 그냘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C] ㄴ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향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ㄱ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D] ㄴ 곱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ㄱ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E] ㄴ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복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갔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줄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하는데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났던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PART

4

고전산문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제주도에 간 배 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냐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물었다.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무슨 말이람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바빠 가시라구!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 비장도 귀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더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만,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불은 데 불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곳 풍속을 모르고.”

“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누시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 내가 이곳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

“그러하면 가이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

“참 딱한 일이올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찾아?”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거나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이 쉬며,

“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

“여보시오,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낭청*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좇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신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조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선이오?”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목낭청: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집'은 '배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배 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사공'은 '배 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2. ㉠~㉥ 중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
- ②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
- 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 ④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
- 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 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랴'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알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HOLSOO

빠른 정답 찾기

INTRO. 수능 문학을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지문명	문제 번호					
P.014	P.006	이육사, 「초가」/ 김관식, 「거산호 2」/ 이육, 「담초」	1. ㉓	2. ㉓	3. ㉒	4. ㉔	5. ㉑	6. ㉔
P.018	P.013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7. ㉔	8. ㉓	9. ㉕	10. ㉕		
P.020	P.018	작자 미상, 「박태보전」	11. ㉒	12. ㉑	13. ㉓	14. ㉕		
P.022	P.023	정훈, 「탄궁가」/ 위백규, 「농가」	15. ㉔	16. ㉕	17. ㉓			



[1~6] 이육사, 「초가」 / 김관식, 「거산호 2」 / 이육, 「담초」

(가)와 (나)에는 현대시 두 작품이, (다)에는 고전수필 한 작품이 출제되었어. 두 갈래가 하나의 지문에 묶여서 출제된 복합 지문이지. (가)는 시어의 상징성이 두드러져 생소하게 느껴졌을 테고, (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다)는 고전수필인데, 한자어가 많고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어려운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도 반드시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표면적인 내용 위주로 물을 수 있으니,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즉, 어려운 작품이 다수 제시되고 문항 수가 많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려 하지 말고, 먼저 화자와 상황 등 표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 후, 문제를 풀 때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좋아. 참고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먼저 단일 작품에 대해 묻는 문제를 해결한 후, 여러 작품에서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것을 추천할게.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구겨진 하늘은 목은 애기책을 편 듯
[A] └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피엄 피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B] └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짤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C] └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뱃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D] └ 곱처럼 어린 늙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E] └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화자와 대상의 관계	쇠락해 가는 마을의 정경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놓인 담당한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상황?	좀 먹은 그림과 같이 황폐해진 고향 마을 → 나물 캐러 갔다 빈 바구니로 돌아오는 가시내들과 돈 벌러 항구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젊은이들 → 피폐한 마을에서 북극을 꿈꾸는 어린 아이와 현실에 지쳐 서로 싸우는 늙은이들 → 얼어붙은 강물처럼 담당한 마을의 상황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분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회자와 대상의 관계	산을 보면서 산을 배우고 산 정기를 그리워하는 '나'
상황?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음 → 산에서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한 삶의 태도를 배움 → 산에서 자라 산에서 죽으므로 산을 고향으로 인식함 → 산을 그리워함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 향기로운 꽃들을 잡초로 인식하여 베어 버리는 것이 안타까움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혜를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줄절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었겠는가?

→ 만물은 모두 각자의 타고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뻗뻗이 늘어진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 모두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인간은 존귀를 따져 다르게 대함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 비록 감

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어 하늘과 달리 소원함과 친함에 따라 물이 영화로운지의 여부를 가리지만, 풀에게는 감정이 없으므로 풀이 되어 소에게 먹히는 것과, 향기를 내어 나비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

- 이옥, 「담초(談艸)」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이것만은 챙기자

- ***꿀**: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
- ***저어하다**: 익숙하지 아니하여 서름서름하다.
- ***영화롭다**: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정답률 95

유형 분석

(가)~(다) 작품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야. 대상을 대하는 화자(글쓴이)의 정서와 태도에 주목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선지에 '성찰', '회의', '무상감', '낙관적 전망' 등 화자(글쓴이)의 정서 및 태도와 관련된 여러 개념어들이 등장하고 있지. 기출 분석을 통해 문학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학습해 두는 것이 좋아. 작품 내용은 물론, 선지의 적절성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자연은'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였으며, 사람에게서는 '감정이 있어'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기에 자연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렇지 않게 하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달리 보'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HOLSOO

빠른 정답 찾기

PART 4. 고전산문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지문명	문제 번호				
			1. ④	2. ④	3. ③	4. ④	
P.094	P.160	작자 미상, 「배비장전」	1. ④	2. ④	3. ③	4. ④	
P.096	P.164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1. ①	2. ③	3. ①	4. ③	
P.098	P.169	작자 미상, 「박씨전」 / 작자 미상, 「조보」	1. ⑤	2. ③	3. ①	4. ⑤	5. ④
P.102	P.175	작자 미상, 「최고운전」	1. ④	2. ②	3. ⑤		
P.104	P.180	작자 미상, 「심청전」	1. ⑤	2. ②	3. ③		
P.106	P.184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1. ③	2. ④	3. ③	4. ③	
P.108	P.189	작자 미상, 「장끼전」	1. ①	2. ⑤	3. ④		
P.110	P.193	작자 미상, 「조웅전」	1. ③	2. ⑤	3. ①	4. ②	
P.114	P.198	작자 미상, 「임장군전」	1. ⑤	2. ⑤	3. ④		
P.116	P.202	「홍길동전」	1. ③	2. ③	3. ③		
P.118	P.206	작자 미상, 「응고집전」	1. ③	2. ③	3. ①	4. ④	
P.120	P.211	김만중, 「사씨남경기」	1. ②	2. ④	3. ①	4. ⑤	
P.122	P.216	작자 미상, 「적성의전」	1. ③	2. ③	3. ④	4. ③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제주도에 간 배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배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냐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서울로 가는 배를 찾고자 하는

배비장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묻는다.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 계집 때문에 분함을 느끼며 책망하는 배비장

“무슨 말이람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염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라며, 초면에 반말이 듣기 싫다는 계집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바빠 가시라구!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비장도 궤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배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더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제주도에 와서 망신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배비장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마는,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갈일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불은 데 불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지만, 길을 물을 사람이 없어 사과를 하고 다시 물기로 하는 배비장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곳 풍속을 모르코.”

“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누시

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 내가 이곳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

“그러하면 가이없습나.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나.”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

“**참 딱한 일이올시다.**” 배비장이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서울로 가는 줄 알고, 사오 일을 기다려야 배가 오는 상황을 딱하게 생각하는 계집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나.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나.”

배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계집으로부터 저녁에 떠나는 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는 배비장

// 장면 끊기 1 제주도에서 창피를 당한 배비장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계집에게 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들음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러, 배비장의 반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사공

“어! 사공은 왜 찾아?”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더니 제 모양 보고 받는지 몰라, **어정정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이 쉬며,

“**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사공에게 반말을 한 것을 실수라고 생각하는 배비장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볼게,

“여보시오,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냥청*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쫓아가며,

“그렇습나.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사공에게 저녁에 해남으로 떠나는 배를 타게 해 달라고 하는 배비장

“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배 비장을 배에 태워

출수 없다는 사공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조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선이오?” 사공에게 부모의 병환으로 급히 가야 하는 자신의 상황을 부인에게 말해 끼어서 가게 해 달라는 배 비장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배 비장을 불쌍히 여겨 부인 모르게라도 태워 주겠다는 사공

// 장면 묘기 02 사공은 부모 병환 때문에 서울에 간다는 배 비장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배를 빌린 부인 모르게라도 슬며시 태워 주겠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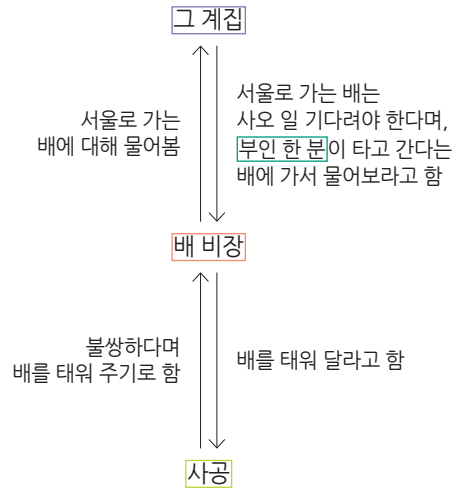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묵낭청: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전체 줄거리

예방의 임무를 맡은 배 비장은 새로 부임하는 제주 목사 김경을 따라 제주도에 도착한다. 배 비장은 정 비장이 기생 애랑과 이별하며 재물을 모두 주는 것도 모자라 이까지 뽐아 주는 것을 보고 정 비장을 비웃고, 자신은 기생에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방자와 내기까지 한다. 방자와의 내기 때문에 다른 비장들이 기생과 어울려 놀 때에도 배 비장은 홀로 고고한 척을 한다. 이를 들은 제주 목사는 애랑에게 배 비장을 유혹하게 한다. 한라산으로 봄놀이를 떠난 배 비장은 우연히 숲에서 목욕을 하는 애랑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애랑을 향한 상사로 시름하다 방자를 통해 애랑에게 편지를 전한다. 밤에 몰래 처소로 오라는 애랑의 답장을 전해 받은 배 비장은 방자의 말에 넘어가 이른바 '제주 복색'을 따르기 위해 개가죽 옷을 입고 개구멍을 통해 애랑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던 중 방자가 남편 행세를 하며 들이닥치자 배 비장은 자루 속에 숨었다가 다시 나무 껍질에 몸을 숨기고, 방자는 껍질을 바다에 버리는 척하며 동헌(東軒) 마당에 놓고 물을 뿌리면서 배 비장을 희롱한다. 자신이 바다에 빠진 줄 안 배 비장은 눈을 감고 알몸으로 껍질에서 빠져나와 허우적대고, 그 모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웃으며 배 비장을 조롱한다. 망신을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가는 배를 타려 하는데 배에서 다시 애랑을 만나게 되고, 후에는 제주도에 남아 정의현감이 되고 그 고을에서 선정을 베푼다.

인물 관계도



이것만은 챙기자

- *책망: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
- *자탄: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탄식함.
- *경향: 서울과 시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수작: 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

| 인물의 특징 및 심리 파악 | 정답률 83

1.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풀이

- ④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책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사공은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라고 말하는 배 비장에게 ‘이 배가 행책 심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책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하지만, 이를 통해 배 비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풀이

- ① ‘계집’은 ‘배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계집은 배 비장에게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냐며, 배 비장의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배 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배 비장은 ‘성함은 뉘시오니까?’라고 묻는 계집에게 ‘성명은 차차 아시지오 마는’이라고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이 배 비장임을 숨기고 있다.
-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계집은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지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가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거기에 가서 물어보라며 배 비장이 궁금해했던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사공’은 ‘배 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사공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다는 배 비장의 상황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의 질문

• 1-②번

- Q: 배 비장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오.
- A: 배 비장은 ‘성함은 뉘시오니까?’라고 묻는 계집에게 ‘성명은 차차 아시 지오마는’이라고 말하며 즉답(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함)을 피한다. 이는 배 비장의 이름을 묻기 전 계집이 ‘요사이 세력이 빨갛출 같은 배 비장도 궤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라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자신이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계집에게 배 비장이 정체를 숨기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인물의 특징 및 심리 파악 | 정답률 99

2. ㉠~㉥ 중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 여보게
㉡: 이 사람
㉢: 여보시오
㉣: 어이
㉥: 노형

✔ 정답풀이

- ④ ㉢, ㉥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와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 하여 대답이 없노?’로 인해 기분이 상한 계집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를 묻기 위해 배 비장은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여보시오)라고 부르며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라고 한다. 따라서 ㉢은 배 비장이 계집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배 비장은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라는 ‘반말에 비위가 틀’린 사공을 보고 자신이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다며 ‘어법을 고쳐 입맛이 싹 들어볼게’ ㉥(노형)라고 부르므로, ㉥은 배 비장이 사공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오답풀이

- ㉠, ㉡
㉢을 들은 계집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에 배 비장이 다시 ㉡라고 부르며 말을 걸자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와 ㉡는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
사공이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라는 배 비장의 ‘반말에 비위가 틀’려 하는 것으로 보아, ㉣은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소재의 기능 파악 | 정답률 98

3.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 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배 비장은 계집으로부터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를 타고 ‘저녁 물에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그리고 ‘오늘 저녁 물에 떠’난다는 사공에게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자고 말한다. 따라서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는 주인공인 배 비장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